

광장에서 다시 읽은 헌법 기후정의운동과 연대를 통해 체감한 민주주의의 가치¹⁾

이수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학생²⁾

저는 어려서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접했고, 무엇보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 무대에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그레타 툰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담대하게 말하는 또래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도 단순히 공부만 하라는 말에 머무르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겠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던 17살에 청소년 기후행동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저는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의 한 대기업 정문 앞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때로는 비웃음을 사거나 외면당하기도 했지만, 몇몇 시민은 제게 다가와 “학생이 나서주어 고맙다”는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를 위한 파업’에 참여하면서 21대 국회에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대학생기후행동에 합류했습니다. 대학생 단체는 다루는 의제가 더 넓고 사회 중심적이었고, 캠퍼스 안팎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거나 정책 제안을 담은 서명 운동을 조직하는 등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운영진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직접 숙명여대 지부의 사업을 기획하고, 다른 지부 대학의 학생들과 협력해 대규모 전국행동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진 활동을 하며 큰 고민도 마주했습니다. 바로 연대의 문제였습니다.

1) 본 원고는 2025년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연구소의 [민주주의의 창의적 실현을 위한 발표]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원고임.

2) uncountedsua@sookmyung.ac.kr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문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탈핵, 노동, 젠더, 퀴어 인권과 같은 사회 의제를 함께 내세우며 다른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요? 왜 굳이 다른 의제와 함께해야 하나요?”라고 선배들에게 물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제 안의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순전히 ‘기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기에, 당시의 저는 다른 사회 이슈와 기후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꾼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12.3 내란 이후 열린 첫 번째 윤석열 퇴진 집회였습니다. 그날 광장에는 퀴어 단체, 노동 단체, 여성 단체, 장애인 단체, 종교 단체, 그리고 기후 단체까지 서로 다른 집단들이 각기 다른 깃발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의제와 다른 요구를 내세운 단체들이었지만, 모두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연대가 왜 필요한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따로일 때는 미약했지만, 함께 모였을 때는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연대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광장에서 저는 헌법에서 배운 추상적 개념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장에 모인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 수만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대학생기후 행동 숙명여대 지부의 깃발을 들고 매주 주말마다 국회의사당(여의도)과 경복궁(광화문)에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노동가와 농민가를 배우며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민연대활동에서 인연이 되었던 농민분들이 남태령에 발이 묶였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숙명여대 학우들과 함께 찾아가 추운 겨울밤을 함께 지새운 기억도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냈던 그 시간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 의존에 있음을 제 몸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위 경험은 법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단순히 제도와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은 국민주권을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한 주체로서 공동체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의 조항들은, 기후위기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해지는 위험을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져줍니다. 결국 제가 광장에서 체감한 민주주의의 힘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이 그려낸 이상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성찰을 남겼습니다. 기후위기를 저 자신의 생존 문제로만 바라보던

제 시각은 확장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 젠더, 노동 문제와 긴밀히 얽혀 있으며, 피해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소수자와 약자에게 가해집니다. 따라서 기후정의는 다양한 사회 운동과의 연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헌법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즉 인간 존엄과 공동체적 삶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적 실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퍼스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적 운영 원리를 무엇보다 중시할 것입니다. 학우, 학내 노동자, 교수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정한 참여와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운동을 넘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구현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기후만”을 위한 활동가가 아닙니다. 법학부생으로서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원리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민주주의를 창의적으로 실현하는 시민으로 서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의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와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